

# 출판사가 鳳인가

다양하게 준비된 책의 해 행사들이 물오른 새순처럼 막막 움을 띄우려 하고 있다. 그런 시작 단계의 행사 가운데는 공공도서관을 비롯한 각 학교도서관의 장서늘리기 운동이라든지, 출판관련 단체들이나 공공기관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벌이는 낙도나 오지의 소외된 지역에 책을 보내는 행사들이 있다. 그것은 어느모로 보나 기대되는 행사들이다.

그런데 이런 행사들로 인해 일부 출판사들이 속병을 앓고 있는 모양이다. 평소에도 아는 연고를 통해 책기증 요청이 심심찮게 들어왔고, 또 사정이 허락하는 대로 사회환원의 차원에서 낙도나 군부대, 감호소 등에 책을 보내오던 출판사들은 책의 해가 시작된 올해들어 부쩍 늘어난 '책 좀

달라'는 소리에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거기에다 도서관이나 공공기관에서조차 '책의 해 행사에 필요하니 책 좀 기증하라'는 얘기에 크게 부담을 느낀다고 한다.

지지난호(121호) 책의해조직위 바깥에서 벌어지고 있는 책의해 행사들에 대해 취재를 하면서 오야해 했던 부분이 정말 문제로 터졌구나 싶다. 일부 도서관이나 공공기관의 행사내용 가운데 많은 양의 책을 필요로 하는 행사가 많아서 그 예산이 따로 책정되어 있는나고 물었더니 "돈이 없어 예산은 배정 못했고 출판사들로부터 도서를 기증 받아 하겠다"고 말하던 것이 기억난다. 그런데 출판사들이 이토록 어이없어하는 걸 보니 결국 "떡 줄 놈은 생각도 않는데 얻어먹을 공리만 화

려했던 셈"인가.

더욱이 그 "달라"는 요구에는 어떤 분야나, 얼마만큼이라는 구체적인 내용도 없다고 한다. 결국 "안팔려 창고에 처박혀 있는 책"을 빈서고나 매우고 행사나 치르게 "왕창 달라"는 이야기인데, 독자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천덕꾸러기처럼 되돌아온 '실패한 책'을 다시 독자앞에 내놓고 싶을 출판사가 어디 있을까. 그것은 주고도 욕먹는 일이지기에 있어도 못 내놓는다며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것이 출판사의 심정 아닌가 싶다.

일부이지만 공공기관의 이러한 발상은 참으로 걱정된다. '실적용 행사'라는 비난도 그렇거니와 이런 곳들은 책을 적정가격에 사들임으로써 출판사가 안심하고 일할 수 있게 기반을 튼튼히 해줄 의무가 있는 곳이다. 그리고 그런곳은 아무리 적어도 예산을 가지고 움직이는 곳이다. 예산이 적다면 다른 곳으로 눈을 돌려 그것을 더 늘릴 공리를 해야지 제몫의 일부인 이곳의 '살집'을 탐내는 생각은 차제에 아셔야 할 망상이 아닌가 싶다.

— 정혜옥 기자

# 재미있는 책이야기

작가겸 사상가인 엘리야스 카네티가 문화철학적 연구서인 「군중과 권력」이 발표된 1960년경부터 70년 초반까지 발표했던 대표적 에세이를 연대순으로 엮은 책이 「말의良心」(반성완 옮김, 한길사).

언어와 문학에 대한 자신의 태도와 창작체법, 그리고 지적 성장에 영향을 끼쳤던 작가들과의 관계를 담고 있는 이 책에는, 그의 첫 작품에 대한 생각을 정리한 글 '나의 첫 번째 책 '현혹''이 실려 있어 여기에 발췌해 소개한다.

이 제목은 혼동을 일으키는데, 왜냐하면 나의 첫번째 책이 된 작품은 1929년 가을에서 1930년 가을까지 1년동안에 써어진 여덟개의 작품중의 하나로 구상되었기 때문이다. 내가 그후 1년동안 집중적으로 손을 대어 완성한 이 소설들 중의 첫번째 소설의 초고는 「칸트 불에 타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었다. 나는 이것을 4년동안 이러한 제목 그대로 놓아두었다가 이것이 출판된 1935년에 와서야 새로운 제목을 붙였는데, 그때 이래로 이 소설은 「현혹」이라는 제목을 갖게 되었다.

오늘날 킨(kien)으로 알려진 이 책의 주인공은 처음 구상할 때에는 B로 표시되었는데, 이는 '책벌레'(Büchermensch)라는 말의 약자였다. 내가 이런 이름을 붙인 이유는 나는 그를 책벌레로 보았고, 또 그

에게는 실제로 그 자신보다는 그와 책과의 관계가 훨씬 더 중요했기 때문이다. 그가 책들로 구성되었다는 것이 당시 그의 유일한 특성이었다. 또 얼마동안은 그밖의 다른 특성이 그에게 없었기 때문에 나는 그에게 브란트(Brand)라는 이름을 붙여 주었다. 이 이름에는 그의 종말이 내포되어 있었다. 즉 그는 불에 타 죽어야 했던 것이다. 내가 이 소설이 세부적으로 어떻게 전개될 지에 대해서는 몰랐지만 처음부터 한가지 사실은 확실하였다. 그것은 그가 자신의 책들과 자신의 몸에 불을 질러서 그의 서재와 함께 불타버릴 것이라는 사실이었다. 그 때문에 그는 브란트라 불려졌다. 따라서 그에게 처음부터 확실했던 것은 그를 부르는 두 명칭인 '책벌레'와 '불'뿐이었다. (중략)

나는 이 소설을 구성하고 있는 세부분을 따로 따로 검은 천으로 제본하여 이 세권의 책을 소포로 토마스 만에게 보냈다. 그는 이 소포를 열어보고는 3부작이라는 인상을 받았을 것임에 틀림이 없다. 나는 편지를 동봉하면서 매우 점잖고 당당한 어조로 말하였다. 잘 믿어지지 않는 일이겠지만, 나는 이것을 보냄으로써 그에게 경의를 표했다고 생각하였다. 나는 그가 이 세권 중에 한 권을 펼치기만 하면 읽는 것을 더이

상 멈출 수 없을 것이라고 확신하였다. 며칠이 지난 후 이 세권의 책은 읽지도 않은 채 되돌아왔는데, 그는 힘이 닿지 않아 읽지 못했노라고 사과하였다. 나는 내가 특별한 책을 썼다는 사실을 철석같이 믿어 의심치 않았는데, 오늘날에 와서도 내가 이러한 확신을 어디서 얻었는가 하는 것은 여전히 하나의 수수께끼로 남아 있다. 모욕적인 이러한 거절에 대한 반작용으로 나는 그 초고를 그대로 내버려두고 거기에 대해서는 일체 손을 대지 않겠다고 결심하였다.

꽤 오랫동안 나는 나의 결심을 고수하였다. 그러다가 때때로 결심이 풀여졌다. 초고의 낭독회를 통하여 나는 점차 나의 고립된 빈 생활에서 벗어났다. 나는 무질과 브로흐를 읽었고 그들의 작품에 깊은 감명을 받았으며, 또 그들을 직접 만나게 되었다. 내게 큰 의미를 지녔던 그밖의 알반 베르크, 게오르크 메르켈 그리고 프리즈 보트루바가 그런 사람들이었다. 출판되기 이전에도 나의 책은 그들과 그밖의 많은 사람들을 위해 이미 존재했었다. 당시 빈에서 진정한 의미의 스타라고 할 수 있는 이들에게서만은 나 자신을 주장하고 싶었고, 또 그들 중 몇사람은 나의 좋은 친구가 되었다. 4년동안 나의 소설을 감히 출판할 출판자

가 없었다는 사실을 나는 결코 굴욕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다. 매우 드문 일이었지만 때때로 나는 친구의 성화에 못이겨 소설을 출판사에 건네준 적도 있었다. 나는 그러한 소설을 출판하는 것은 모험이라고 설명하는 편지들을 받은 하였지만, 그러나 이 편지들은 거의 언제나 정중한 것이었다. 패트 주르캄프만이 그 소설에 대한 깊은 혐오감을 매우 명백히 느끼도록 하였다. 거절의 편지를 받을 때마다 그것은 이 책이 계속 살아남으리라는 나의 확신을 강화시켜주었다. 1935년 드디어 이 소설이 출판되게 되었을 때 브로흐는 그로서는 매우 이례적인 정도의 완고함으로 칸트라는 이름을 포기하도록 내게 독촉하였다. 나는 항상 그럴 계획이었지만, 그때에서야 마침내 실제로 이름을 바꾸었다. 그래서 킨(소나무란 뜻)이라는 이름이 붙여졌고, 이로써 그의 이름에 어떤 가연성이 다시 들어가게 되었다. 칸트라는 이름과 함께 '칸트 불에 타다'라는 제목도 사라졌고, 그래서 나는 「현혹」을 새로운 최종적인 제목으로 하기로 작정하였다.

아마 나는 토마스 만이 출간 후 즉시 그 책을 읽었다는 사실을 언급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그는 그 해에 출판된 모든 책들 중에서 그의 형 하인리히의 「앙리 4세」와 나의 책이 가장 그의 관심을 끌었다고 나에게 썼다.

# 출판저널

통권 123호 / 1993년 3월 5일 발행

발행인 — 鄭鎮肅  
편집인 — 金炳翼  
인쇄인 — 李登秀  
편집부장 — 康鐵柱  
기자 — 鄭素淵 鄭蕙玉 崔允源 李聖洙 金重植  
디자인 — 尹貞子  
사진 — 金弘鎮

업무차장 — 尹東鎬  
업무·광고 — 李義天 崔炳天 金攸姬 金容一

등록 1987년 6월 9일 - 다 435  
대체구좌 010041-31-2826477  
발행처 - (재) 한국출판금고  
인쇄처 - 평화당인쇄주식회사  
전산사식 - 타이피아

출판저널 - 110-190 서울 종로구 사간동  
105-2 출판문화회관 2층  
전화 732-1431 ~ 3  
FAX 722-1174

「출판저널」은 신문윤리강령 및 주간신문윤리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출판저널」 편집서평위원

權寧彬	琴華泰	金光秀	金文煥
金錫滿	金聖坤	金彥鍾	金榮漢
金仁會	金鍾元	金治洙	金榮俊
金泰賢	金泰亨	朴明淳	朴星來
朴世熙	潘星完	邊衡尹	徐潤昊
宋相庸	申福龍	慎鍾夏	安秉永
安輝濤	梁文吉	吳光洙	柳一相
尹志寬	李瑞淑	李萬薰	李光周
李基相	李斗曠	李萬烈	李煥勳
李相日	李勝羽	李元毅	李重漢
李姬載	林煥燮	張必和	張會翼
鄭丙圭	鄭曉鍾	鄭雲瑛	鄭晉錫
鄭鍾弘	曹南鉉	曹大鉉	崔鍾庫
韓相賢	韓勝憲	許頌烈	洪廷善
黃鉉產			(가나다 순)

## 「출판저널」 정기구독안내

매월 5일·20일자로 발행되는 격주간 「출판저널」의 정기구독예도를 안내합니다.  
\* 본사의 지로용지로 11,000원(반년분) 또는 20,000원(1년분)을 송금하시면 입금된 날짜의 해당호부터 우송해 드립니다. 정기구독 예약은 반년분 또는 1년분 단위로 신청을 받습니다.  
\* 본사의 지로 용지가 없으신 분은 전국 각 은행(농협 수협 축협 포함)의 A지로 용지에 본사 지로번호 3008669와 금액, 주소, 성명을 명기, 불입하거나 또는 우체국 대체구좌 010041-31-2826477을 이용하십시오.

## 독자서평을 모집합니다

본지는 서평의 활성화에 보탬이 되도록, 독자들이 참여하는 「독자서평」란을 두기로 했습니다. 신간중에서 감명깊게 읽은 책, 값지다고 생각되는 책을 서평의 형식으로 소개하는 글이 되겠습니다. 원고분량은 책명과 저·역자명을 포함하여 2백자 원고지 7매 내외, 투고하시는 분의 주소·성명·직업 등을 첨가하여 본사 「독자서평담당자」 앞으로 우송해 주십시오. 투고된 원고는 소정의 심사를 거쳐 본지에 게재합니다. 수록된 서평에 대해서는 게재지와 소정의 원고료를 드리겠습니다.

공급 : 한국출판협동조합

서울 마포구 신수동 448-6  
716-5616 ~ 9, 716-5621 ~ 3